

# 언어학연구

## 제19권 2호

ISSN : 1226-9859(Print)

---

### ‘아니’계열 부정소의 지위에 관한 고찰

조미희

**To cite this article :** 조미희 (2014) ‘아니’계열 부정소의 지위에 관한 고찰, 언어학연구, 19:2, 137-159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 ‘아니’계열 부정소의 지위에 관한 고찰

조 미 희  
(연세대학교)

**Cho, Mihee.** 2014. **A Study on the Status of ‘ani’ series negative marker.**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19(2), 137-159. The theme of this paper is the change of the characteristic of ‘ani’ series negative marker from Old-Korean to Present-Korean. Main changes of the negative marker are the change of part of speech of ‘ani(an)’ and lexicalization of ‘ani-’ and ‘aniha-’. ‘ani-’ and ‘aniha-’ are negative predicates in Present-Korean, but they are originated from ‘ani’ + ‘i-’ and ‘ani’ + ‘ha-’ in Old-Korean. for this reason, ‘ani-’ and ‘aniha-’ not only have one meaning, such as meaning as support verb, but also have diverse meaning responding positive counterpart like ‘i-’ and ‘ha-’. As a result, lexicalized negative marker ‘ani-’ and ‘aniha-’ have diverse functions such as quotation verb and pro-verb in Present-Korean. (Yonsei University)

**Key words** : Negation, Negative marker, ‘ani-’, ‘aniha-’, Lexicalization

### 1. 서론

본고는 우리말에서의 부정소, 그 중에서도 ‘아니’계열 부정소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아니’ 계열 부정소는 현대국어의 부정부사 ‘아니’와, 형태적으로 ‘아니’를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는 ‘아니하다’, ‘아니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sup>12</sup> 부정부사 ‘아니’와 부정서술어 ‘아니하다’는 ‘못’, ‘못하다’, ‘말다’ 등의 다른 부정소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무표적이고 기본적인 부정법을 담당하고 있다. ‘아니다’와 ‘아니하다’는 모두 현

1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정법, 또는 부정소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사는 김동식(1990), 임흥빈(1998), 서정수(1974, 1994), 이지영(200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용언은 ‘아니하-’, ‘아니-’와 같이 표기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읽기의 편의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기본형 어미를 붙인 ‘아니하다’, ‘아니다’와 같이 적기로 한다.

대국어에서 부정부사로 사용되는 ‘아니’를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분리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분리한다면 명사로 볼 것인지 부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도 이견이 있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아니’와 그 축소형으로 보이는 ‘안’, 그리고 ‘아니하다’와 그 축소형으로 여겨지는 ‘안하다, 았다’가 우리말에서 가지는 문법적 지위를 논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 ‘아니다’의 문법적 정체와 그 구성요소인 ‘이다’의 성격을 살펴본 뒤, 3장에서는 ‘아니하다’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출현 양상을 통해 그 성격을 정리하고, 이들을 어휘화된 부정서술어로 정립한다. 4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 2. ‘아니’의 문법적 성격

우선 ‘이다’의 부정대당형인 ‘아니다’의 문제부터 다루기로 한다. ‘아니다’는 ‘아니+이다’로 이루어져 있어, ‘아니다’에 포함된 ‘아니’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독립된 ‘아니’의 성격을 볼 뿐만 아니라, ‘아니’와 결합하는 대상인 ‘이다’의 성격도 보아야 한다. 독립적인 ‘아니’의 성격은 2.1에서 다루며, ‘아니’가 ‘이다’와 결합했을 때의 문제는 2.2에서, ‘이다’의 성격을 통해 ‘아니다’의 문법적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은 2.3에서 이루어진다.

### 2.1 중세국어 시기 ‘아니’의 품사 문제

먼저 독립적으로 쓰이는 ‘아니’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아니’계열 부정소의 성격에 대한 초기 연구 중, 안병희(1959)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아니’의 명사적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의 기본 논지는 중세기에 나타나는 용언의 활용과 체언의 활용<sup>3</sup> 중, ‘아니’가 체언의 활

<sup>3</sup> 안병희(1959)는 체언이 활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굴절어에서 나타나는 동사의 내적변화를 ‘활용(conjugation)’이라 할 때, 교착어인 한국어에서 용언에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은 ‘활용’이라 부를 수 없다. 특히 명사의 굴절(inflexion)은 ‘곡용’(declension)으로 다시 구분되므로, ‘체언의 활용’이라는 표현은 정의상 맞지 않는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어미의 결합을 ‘활용’으로 불러 온 국어학계의 전통을 따르면, 용언과 체언에 모두 어미가 붙어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게 된다는 공통점을 포착해 낸다는 의의가 있다.

용을 보이고 있으므로 ‘아니’의 성격은 체언이라는 것이다. 다른 논의에서 흔히 계사 혹은 지정사로 분류되는 ‘이-4’를 여기서는 “Translative suffix(TS)”<sup>5</sup>라 하여 i-∅의 형태를 가진 형태소로 보고 있으며, 체언의 활용 끝 안에는 TS가 체언과 어미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체언의 활용과 용언의 활용이 다른 것은 TS의 유무에 따른 것이므로, 체언과 결합할 때와 용언과 결합할 때 형태가 달라지는 어미는 형태론적으로 제약된 이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활용어미의 형태를 보고 어간의 품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아니다’는 ‘아니라, 아니로다, 아니어늘’ 등 ‘명사+이다’와 같은 어미를 취하므로 활용 끝을 품사 분류 기준으로 내세운 안병희(1959)는 ‘아니’가 체언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는 ‘이(다)’를 지정사나 계사와 같이 독립된 단어로 보지 않고, 접사로 설정하고 있다. 만약 ‘이다’를 용언으로 인정하는 경우, ‘아니다’와 ‘이다’가 함께 지정사 범주를 이룬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병희(1959)에서는 만약 지정사 범주가 우연히 명사와 같은 활용을 하는 범주일 뿐이라면, 활용에 의해 품사를 결정짓는 방법이 한계에 부딪치게 됨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니’에 어미가 붙은 예뿐만 아니라, 체언으로서의 분포를 보이는 다른 예를 더 제시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아니’가 명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 하였다. (안병희 1959: 75~76 재인용)

(1) 의문점사가 붙은 경우.(명사의 예: 賞가, 罰아, 종가, 항것가 등)

아니가: 아로미 아니가 (楞嚴經諺解 III, 33), 나며 드로미 아니가  
(楞嚴經諺解 III, 91), 同가 異아 生滅이 아니가 同異 아니가 (楞

4 ‘이다’의 문법적 지위에 관한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최현배(1937), 서정수(1994)의 잠음씨(지정사)설, 양정석(1986)의 용언설, 목정수(2003)의 기능동사설, 임흥빈(2006)의 형용사설, 정인승(1949), 성기철(1977)의 서술격조사설을 꼽을 수 있다. ‘이다’의 범주에 대한 문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명사를 서술어로 한 문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서양의 copula에 대응시키는 입장으로 ‘계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5 안병희(1959)에서는 “Translative suffix”의 역어를 제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translative’가 범주를 다른 범주로 전용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능 전용 접미사(機能轉用 接尾辭)’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병희(1959)는 명사의 범주에 있던 어휘를 동사의 범주로 전용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Translative suffi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嚴經諺解 III, 93), 디내야 꾸미 아니가 (杜詩諺解 XXII, 35), 또  
넷이리 아니가 (杜詩諺解 XXV, 14)

아니이: 혼 體아 혼 體 아니아 (楞嚴經諺解 III, 93), 이제 소리아  
아니아 (楞嚴經諺解 IV, 126)

(2) 도구격

아니로: 브덴 乘 아니로 了義사므니라 (圓覺經諺解 上 I-I, 66)

(3) 대격

아닐~아니를: 圓覺性 아닐 멀오 (圓覺經諺解 上 I-II, 134)

둘 아니를 조차 順흐샤미라 (圓覺經諺解 上 I-II, 57), 이둘히 둘 아  
니를 일후미 空相이라 흐시니라 (般若心經, 38), 이 생이며 생  
아니를 굴히느니 (法華經諺解 V, 30)

(4) 처격

아니예: 숲가락과 숲가락 아니예 나몬 (楞嚴經諺解 II, 54)

(5) 공동격

아니와: 이 實이며 實 아니와 (法華經諺解 V, 30), 나몬 세 門과 性  
아니와 一性和 乘 아니와 一乘과 므슴 아니와 眞心和 等에 니  
르리 (圓覺經諺解 上 I-I, 68)

(6) 공동격과 다른 격의 복합형

아니왜: 이와 이 아니왜 업스리잇고 (楞嚴經諺解 II, 49)

아니왓: 이와 이 아니왓 브들 (楞嚴經諺解 II, 48), 이와 아니왓 두  
브디라 (楞嚴經諺解 II, 49)

아니와애: 숲가락과 숲가락 아니와애 나게 흐리라 (楞嚴經諺解 II, 53)

‘아니’에 바로 조사가 붙은 (1~6)의 예까지 포함해 고려해하면, ‘아니’는 중  
세국어에서 체언이며, 용언이 아니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 논의  
는 ‘아니’를 명사로 봄으로써, ‘아니하다’의 형성에서 ‘아니’를 부사어로 볼  
때의 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 2.2 ‘아니다’를 구성하는 ‘이다’의 품사 문제

반면 ‘아니’를 부사로 보는 입장으로는 대표적으로 엄정호(1989)를 들 수  
있다. 우선 엄정호(1989)에서는 ‘아니다’가 ‘아니+이다’인 것으로 보고 있으

므로, ‘이’를 접사로 처리하여 용언으로 보지 않는 안병희(1959)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엄정호(1989)에서는 ‘X이다’가 (7)와 같이 언제나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8)에서 보이듯이 언제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X가 독립된 명사로서 기능하고 있고, 그러므로 ‘X이다’ 전체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7) 철수는 {똑똑한, \*똑똑히, \*똑똑하게} 사람이다.

(8) 철수는 {굉장한, 굉장히} 부자이다.

그러므로 ‘X이다’는 ‘[X]-이다’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본다.

그런데 안병희(1959)와 같이 ‘아니’를 명사로 볼 경우 ‘X이다’를 두 단어로 보는 분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아니’가 ‘이다’와 결합할 때 이외에는 ‘아니’가 늘 부사로 쓰인다. 둘째, ‘아니’를 명사로 볼 경우, 두자리 서술어인 ‘이다’가 부정문을 만들 때는 논항으로 명사 ‘아니’를 추가적으로 취하게 되므로 세자리 서술어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엄정호(1989)에서는 현대국어의 ‘아니’를 부사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안병희(1959)에서 제시한 ‘아니’ 체언설까지 반박하려 한다. 그에 따르면 조사와 결합한 ‘아니’는 늘 논항을 요구하고, 특히 주격을 요구한다.

(9) 엄정호(1989:118) 재인용

- a. 이 성이며 성 아니를 굴히느니 (법화경언해 五. 3)
- b. 숭가락과 숭가락 아니에 나몬 (능엄경언해 二. 61)
- c. 이와 이 아니왜 이시리오 (능엄경언해 二. 57)

위의 예에서 ‘아니’가 각각 ‘성, 숭가락, 이’를 논항으로 요구하며, 이들은 주격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엄정호(1989)에서는 명사가 논항을 요구한다는 것, 특히 주격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법에 너무 큰 부담이 되므로 이러한 분석은 피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답은 (9)의 ‘아니’를 명사가 아닌 부사 ‘아니’와 ‘이다’의 통합형으로 보고, 동시에 ‘아니+이다’의 후접 격조사 사이에 어떤 구문요소가 생략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9)의 예는 다음 (10)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 (10) 아니 + 이(다) + (생략된 요소) + 격조사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논문에서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아니+이다’ 뒤에서 생략된 요소는 명사화 보문자일 것인데 보문자가 쉽게 생략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아니+이다’에서 보문자가 생략된다면 왜 ‘이다’가 홀로 있을 때는 보문자 생략의 예가 관찰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새로이 발생한다. 엄정호(1989)에서는 이러한 문제보다는 여전히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아니’ 부사절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 주장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엄정호(1989)에서는 계속해서 ‘이다’가 두자리 서술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니’가 명사가 아닌 부사라고 주장하게 된 동기도 ‘아니다’에서 나타나는 ‘이다’를 세자리 서술어로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즉 ‘아니’를 논항에 포함되지 않는 부사로 볼 필요가 있었고, 나아가 현대국어뿐 아니라 중세국어에서까지 ‘아니’ 체언절을 부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9)의 예를 해석할 때에는 ‘이다’가 주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즉 하나의 논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엄정호(1989)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9)의 ‘명사+아니’는 ‘명사(주어)+부사(아니)+이다’로 해석될 것이고, 그러면 이때의 ‘이다’는 주격만을 부여하는 한자리 서술어가 된다. 이는 엄정호(1989)에서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이다’가 두자리 서술어라는 기본 전제와 상충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니’를 부사로 봐야 하는 최초의 동기가 부정된다.

본고는 ‘아니’의 문제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니+이다’가 명사 ‘아니’와 ‘이다’의 합성어에서 기원했으며, 이후 어휘화되어 하나의 단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아니다’의 형성 당시 ‘아니’는 명사로서 참여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1) 명사 ‘아니’ (우리말 큰사전:5234 재인용)<sup>6</sup>

- ㄱ. 갓ᄃ로ᄃ로 諸法 有無와 이 實이며 實아니와 이 생이며 생 아니를 고히느니 (법화 5:30)
- ㄴ. 이 둘히 둘 아니를 일후미 空相이라 하시니라 (반야 38)
- ㄷ. 숲가락과 숲가락 아니에 나뉜 이와 아니왜 둘히 업수물 니르시

<sup>6</sup> 사전 예문 중, 이들 예문에 대응하는 한문 부분은 여기에 옮겨 적지 않았다. 또, 본고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문맥 부분은 일부 삭제하였다.

니라 (능엄 2:61)

ㄹ. 모든 사람 아니는 얼굴 잇느니와 얼굴 업스니와 想 잇느니와 想 업스니를 ㄱᄃ치시니 (능엄 6:22)

ㄱ. 法 아니로 鍛鍊호야 承服호기를 요구호니 (증무원 1:3)

여기에 나타나는 ‘아니’는 현대어로 하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명사 ‘아니’와 서술어 ‘이다’가 연결된 구성은 본래는 선행하는 구와 명사 ‘아니’가 연결된 전체 구성에 서술어 ‘이다’가 연결되었다가, 다음과 같이 재분석되어 하나의 용언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12)

ㄱ. 모시 바르리 아니며 두들기 궤히 아니라 (月二, 76a)

ㄱ'. 못+이#[바를+이#아니]+이+-.며#두들+이#[뿔+이#아니]+이+-.라  
(= ‘못’이 ‘바다’가 아닌것’이며, ‘언덕’이 ‘산’이 아닌것’이다.)

ㄱ''. 못+이#[바를+이#[아니+이]]+-.며#두들+이#[뿔+이#[아니+이]]+-.라  
(= ‘못’이 ‘바다’가 아니며, ‘언덕’이 ‘산’이 아니다.)

## 2.3 ‘아니다’를 구성하는 ‘이다’의 논항 문제

‘아니’의 품사를 결정한 다음에는 ‘이다’의 논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해법의 실마리는 임동훈(2005)에서 보인다. 임동훈(2005)은 ‘이다’의 성격을 서술성이 있는 독립된 용언으로 보지도, 접사나 조사와 같은 의존요소로 처리하지도 않는다. ‘X-이다’를 한국어에서 제시문을 만드는 요소로 보는데, 제시문은 주어와 술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서술성이 없는 문장이므로 제시문을 형성하는 ‘이다’는 기존의 분류와는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sup>7</sup>

이 논의는 명제에는 반드시 서술의 의미를 가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 내용이 없는 판단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sup>7</sup> 임동훈(2005)에서는 형식 면에서는 주어와 술어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의미 면에서는 서술성이 없는 문장을 제시문, 그렇지 않은 문장을 정언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미가 문법적인 장치를 통해 실현될 때, 제시문의 경우 문법적 서술성을 줄여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장치 중 제시문을 만드는 ‘이다’가 있는 것이다.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때, 이러한 서술 내용이 없는 판단, 즉 정언이 아닌 제시의 기능을 하는 문장 형식이 존재하고, 제시의 기능을 하는 여러 수단 중 ‘이다’의 일부 용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흔히 무주어문으로 다루어지는 문장(“세존이시여!”)이나 ‘이다’에서 문법화된 조사들(‘-이며’, ‘-이라고’, ‘-요’)을 살펴보면 기존의 논의와 달리 ‘이다’가 반드시 2개의 논항을 취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용법이 화석화된 쓰임에 논항이 하나뿐인 형식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다’가 두자리 술어가 아니었다는 증거이다. 기존의 ‘이다’에서 기원한 이들 언어요소들은 제시문의 성격을 가진, 즉 논항이 하나인 ‘이다’에서 기원한 것이다.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 제시문이 등치관계, 서술화, 수식 등의 방법을 통해 확장되어서 현재와 같은 ‘N1이 N2이다’ 형식의 구문으로 발달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다’가 사용된 제시문이 현대국어에 일반적인 정언문으로 확대된 뒤에도, 이 구문에 여전히 제시문의 성격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이다’는 ①담화의 맥락이 분명할 때 생략될 수 있고, ②명사구뿐 아니라 부사, 부사어, 어근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 또한 ③논항을 요구하는 술어가 아니므로 ‘이다’와 선행어 사이에 격조사가 오지 못하고, ④술어명사가 오는 일부 환경에서 ‘이다’는 기능동사의 구실을 한다.

‘이다’에 남아 있는 이러한 성격을 통해 앞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sup>8</sup> 엄정호(1989)에서는 ‘아니다’를 ‘아니+이다’로

<sup>8</sup> 엄정호(1989)에서 ‘이다’와 선행요소를 분리하여 ‘이다’만을 용언으로 세운 첫 번째 동기는 ‘X-이다’가 부사어의 수식을 못 받으면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정호(1989:112) 재인용

- (1) 철수는 {똑똑한, \*똑똑히, \*똑똑하게} 사람이다.
- (2) 철수는 {굉장한, 굉장히} 부자이다.

그러나 임동훈(2005)에서와 같이 ‘이다’가 제시문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1)의 문장은 제시문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어 ‘철수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제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2)의 문장은 제시문의 성격을 가진 첫 번째 해석(“굉장한 부자이다”)과, 재분석을 거쳐 ‘부자이다’가 술어명사와 기능동사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는 두 번째 해석(“굉장히 부자이다”)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임동훈(2005)에서 밝혔듯이, 논리적으로 제시문은 ‘개체에 대해 어떤 속성을 서술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이나 사태를 단언하거나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정언문은 “존재를 인정하는 첫 번째 판단에, 존재가 인정된 대상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두 번째 판단이 덧붙여 구성된다”. (1)의 ‘사람’은 철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 번째 판단에, (2)의 ‘부자’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철수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그의 속성을 서술하는 문장이라는 점

분석하고 이때의 ‘아니’를 부사로 보며 명사로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근거로 든 것이 ①‘아니’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이다’ 앞이라는 환경밖에 없다는 점과, ②‘아니’를 명사로 볼 때 ‘아니다’를 구성하는 ‘이다’는 ‘아니’가 없이 홀로 쓰인 ‘이다’에 비해 자릿수가 한 자리 늘어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아니+이다’가 ‘아니다’로 어휘화되었다고 보면, ①‘아니’를 현대국어에서도 명사로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고, ②‘이다’에 비해 ‘아니다’의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볼 필요도 없어진다.

‘아니다’의 구성으로 돌아와서, 임동훈(2005)에서는 ‘아니다’의 형성에 대해 ‘이다’의 의미 중 기능동사로 사용되는 ‘이다’의 ‘X-이다’ 구성에서, X 자리에 ‘아니’가 와서 ‘아니다’가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X-이다’에 ‘X-아니다’가 대응되는 것도 아니고, 부사 ‘아니’가 술어 ‘이다’를 수식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기능동사인 ‘이다’가 술어 명사와 함께 ‘X-이다’ 구성을 가질 때, 술어 명사의 위치인 X에 체언인 ‘아니’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때 ‘아니’가 기능동사 ‘이다’의 술어명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이다’류는 가능한 데 비해 ‘열심이 아니다’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기능동사의 술어명사 자리가 ‘아니’로 채워지면, ‘열심’과 같은 명사가 다시 술어명사로 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아니다’가 술어명사로서의 ‘아니’와 기능동사인 ‘이다’와 결합한 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문맥을 검토할 때, ‘열심이 아니다’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

- ㄱ. 그는 시험 공부에 열심이다.
- ㄱ'. 그는 시험 공부에 여간 열심이 아니다.
- ㄴ. 그는 동생에게 심술이다.
- ㄴ'. 그는 동생에게 여간 심술이 아니다.

에서, (1)은 제시문의 성격을 가진 반면 (2)는 서술문의 성격을 가지고, 그러므로 (1)은 판단이 제시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2)는 기원적인 제시문의 속성이 남아 있는 해석과, 정언문의 해석 두 가지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이다’를 독립된 용언으로 분석하려는 동기를 잃게 된다.

더욱이 ‘이다’는 ‘N1이다’의 문형과 ‘N1이 N2이다’ 문형의 두 부류가 있는데, 이를 제시문과 정언문으로 설명함으로써 각각을 다른 구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ㄴ". #이것은 괜한 심술이 아니다.<sup>9</sup>

본고는 '이다'가 기능동사로 쓰인 예로 (13ㄱ, ㄴ)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아니다'도 기능동사로 쓰일 수 있으며 그 예가 (13ㄱ', ㄴ')과 같은 예라고 본다. 동일한 명사가 쓰였다더라도 기능동사가 아닌 (13ㄴ")의 예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본고는 기원적으로는 '아니'가 명사이고, 명사 '아니'와 술어 '이다'가 결합하여 '아니다'를 형성하는 과정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다'가 가진 일부 용법 중 기능동사의 용법에서 '아니다'가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이다'의 부정대당형으로서 '아니다'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임동훈(2005)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다'와 술어명사가 함께 사용되었을 경우 '아니다'에 의한 부정문의 형성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13)의 예를 통해 볼 때 이것은 문법적인 제약이 아니라 의미에 의한 제약으로 보인다.<sup>10</sup>

이와 같이 본고는 '아니'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명사로 기능하였고, '아니다'의 형성 당시에도 명사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니다'는 기존의 관점과 같이 '이다'의 부정대당형이고, 실제 언어 자료에서 기능동사 용법의 '이다'에 대응하는 '아니다'가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의 의미에 의한 제약이지, '아니다'의 내부 구성에 따른 제약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기원적으로는 '아니'가 명사였다고 하더라도, 현대 국어에서 '아니다'는 어휘화되었으므로 그 안에 '아니'가 명사의 자격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아니'는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과거와 달리 현대국어에서는 부정부사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9 '#은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정문이나 의미 해석은 논문의 의도와 다른 경우를 표시한다.

10 본고는 '아니다'가 기능동사로 기능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니다'의 내부 구조에 있지 않다고 본다. 즉 술어명사의 위치에 '아니'가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논항을 취하는 기능동사가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반대하고, 단지 이 제약은 부정이라는 의미에 의해 생기는 특징이라고 본다.

'아니다'는 존재를 의미하는 '이다'의 부정으로, 어떠한 개체에 특정 속성이 부재함을 나타내는 것이 전형적인 쓰임이다. 기능동사는 술어명사의 행위성을 용언으로 실현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아니다'의 의미는 '부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성을 드러낼 수 없다. 그러므로 술어명사와 결합해 행위성을 드러내는 쓰임을 갖기 어려워 실제 문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인 것과 같이 수사적으로 설의법의 쓰임을 보이면 형식적으로는 부정문이더라도 의미상으로는 부재를 의미하지 않게 되므로, 비로소 문면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즉 기능동사로서의 '아니다'가 술어명사를 취하여 실현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가 가지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 3. ‘않다, 아니하다’의 문법적 성격

앞에서는 부정부사 ‘아니’의 명사로서의 성격과 ‘아니다’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부정서술어 ‘아니하다’의 지위, 특히 술어명사 뒤에 연결되는 ‘아니하다’의 경우를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우선 이를 살펴보기 전에 ‘아니하다’에서 ‘않다’로의 발달 과정을 먼저 다루고 넘어가기로 한다.

#### 3.1 용언 ‘않다’의 통시적 변화

이 절에서는 초기의 ‘아니’, ‘아니하다’에서 현대의 ‘안’, ‘않다’가 형성된 과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부정부사 ‘아니’가 ‘안’으로, 부정서술어 ‘아니하다’가 ‘않다’로 평행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아니’ 계열 부정소의 통시적 발달 과정에 관해 다룬 초기 연구로는 19세기 국어 전반에 대한 문법사적 고찰을 하고 있는 이현희(1994)가 있다. 이현희(1994)에서는 19세기까지는 ‘아니하다’가 환경에 따라 ‘아니하다, 아님다, 아님다, 아니다’ 등으로 교체되어 나타나다가, 19세기 중엽 이후에 들어 ‘아니하다’가 모든 환경에서 ‘않다’라는 새로운 이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아니하다’의 끝에서 ‘않다’의 꼴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만하다’나 ‘올하다’가 ‘많다’, ‘웁다’ 등으로 재구조화된 현상으로부터 일어난 유추가 작용한 것이며, 다양한 이형태를 가지던 ‘아니하다’가 모든 환경에서 ‘않다’로 나타남에 따라 다른 교체형들은 위축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형태 ‘않다’에서 부정부사 ‘안’이 재분석되어 나왔으며, 부사 ‘안’이 생겨난 뒤에야 비로소 ‘안’이 ‘아니’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희(1994)에서는 그 근거로 문헌에서 “안하다”라는 부정용언이 출현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안하다”에서 부정부사 ‘안’이 분리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지영(2008)에서는 ‘아니하다’가 먼저 ‘안하다’로 재구조화되고, 그 뒤 ‘안하다’가 ‘않다’으로 재구조화되는 변화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이지영(2008:41~45)에서 이현희(1994)의 경우와 달리 ‘안하다’라는 중간 단계를 상정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 (14) ‘-아’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의 교체:

- ㄱ. 정부에 신칙과 관찰부 훈령이 모도 나라에 시급한 공무이온디 당초에 눈으로 보지도 안하야 두서를 분별치 못하니 <獨立 2권 14호 잡보>
- ㄱ'. 또 었던 사름은 새 일은 다 도치 안아 새 일 중에 도흔 것이 하나도 업다 하니 <京寶 4:205>
- ㄴ. 집은 리쇼스의게 허급지 안하엿다고 하엿스니 <獨立 1권 60호 잡보>
- ㄴ. 이러치가 안히도 도적이 간간히 잇는디 이런 말들이 잇고야 성 안 성 바찌 도적 써문에 인민들이 었지 살넌지 모로갓스니 <獨立 1권 70호 잡보>

## (15) ‘-느-’와 결합할 때의 교체:

- ㄱ. 요스이는 경무청에서 이런 일을 슬피지 안하느니 경무청 관원들과 순검들이 아직도 잠을 찌지 안하엿넌가 보더라 <獨立 1권 82호 잡보>
- ㄴ. 오늘날 돈푼이나 었어 쓰는 거슬 중히 녀이는 사름은 미구에 즈끼 몸이 망하고 집안이 결단 나눈 거슬 생각지 안하느 사름들이라 <獨立 1권 74호 논설>
- ㄴ. 모로는 빅성들은 다몬 의심과 두려운 생각몬 나 점점 서로 속히고 서로 히힐 궁리밧키는 나지 안하느니라 <獨立 2권 61호 논설>

이 시기에 ‘않다’와 ‘안하다’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아니하다 → 안하다 → 않다’의 재구조화 과정을 상정하는 것이다.<sup>11</sup> (14-ㄱ)은 ‘안하다’가

<sup>11</sup> 박형우(2008)에서는 ‘아니하다’에서 ‘하-’의 축약과 탈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 부정부사 ‘아니’가 ‘안’으로 축약되어 ‘아니하다 > 아니타 > 안타(않다)’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아니타’와 같은 형태가 출현하고, 17세기 자료에서 ‘안’의 형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들고 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용언의 준말이 많이 쓰였음을 고려하면, ‘아니타’와 같은 형태가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위와 같은 발달과정을 가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대국어 시기에 ‘하다’의 ‘-’가 줄어 ‘ㅎ’과 다음 음절의 초성이 어울려 격음으로 나타나는 예는 많이 있다. 이는 용언 ‘아니하다’뿐 아니라, 다른 용언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여기에서는 이주행(1993:51)의 예를 들어 둔다.

쓰인 예이고, (14ㄱ')은 같은 시기에 ‘않다’가 쓰인 예이다. 다만 ‘ㅎ’이 모음 사이에서 약화되어 겹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이 같은 시기에 ‘안하다’와 ‘않다’가 교체되어 등장했다는 자료를 통해 이지영(2008)은 ‘안하다’가 ‘아니하다’에서 ‘않다’로 변화하는 문법화 과정의 중간 단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아니’와 ‘하다’ 사이의 긴밀성보다 ‘아니’ 내부의 긴밀성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내부에서의 형태 축소가 먼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므로 ‘안하다’로 먼저 줄어든 뒤 ‘않다’로 다시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만하다’류가 ‘많다’로 변화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도 근거로 들고 있다.

‘않다’의 발달을 다루는 두 논문에서 해석의 차이가 생긴 것은 검토한 자료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현희(1994)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화음계몽>, <재간교린>, <교정교린>, <정정인어> 등으로 중국어 학습서, 일본어 학습서,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등 언어 학습서류에 치우쳐 있다. 반면, 이지영(2008)에서는 신문, 종교 관계 문헌, 신소설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어 실제 언어를 더 잘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두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발달과정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논지는 동일하다. 부정부사 ‘안’이 부사 ‘아니’에서 바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부정서술어가 줄어들어 생겼다는 것이다. 이지영(2008)은 이현희(1994)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부사 ‘안’의 형성이 ‘않다’의 영향이라는 데에는 의

- (3) ㄱ. 평안타<東三, 三綱忠臣圖, 3b>, 아니타<東三, 續三綱孝子圖, 13b>, 아니타<家談, 1:8b>, 重케<家談, 1:12b>
  - ㄴ. 벼타<辟瘟, 4a>, 관계치<重老, 上24b>, 아니코<馬謔, 上 30a>, 아니케<馬謔, 上 45b>, 請코져<捷解, 6:22a>
    - ㄷ. 도타<伍倫, 1:4a>, 重치<女謔, 序 4b>, 숭상타<女謔, 1:10a>, 切至타<御常, 5b>, 謹코<論栗, 1:3b>
      - ㄹ. 아니코<御訓, 3a>, 의심치<種德, 上5a>, 아니타<御百, 11a>, 공양커나<地經, 上7b>, 피키<普佛, 4b>, 시형코져<明謔, 1:1b>, 當케<增無, 1:2b>, 넘너타<五行, 1:27b>
        - ㄴ. 먼치<한등, 2:2a>, 아니케<한등, 2:5b>, 평안케<新三, 上1a>
          - ㄷ. 먼타<太謔, 1:7a>, 傳케<女訓, 上8a>, 求코져<女訓, 上17a>, 부요커든<南桂, 7b>, 교만치<女小, 1:36b>, 각코<독립, 1896.4.7.1면>, 아니치<협성, 1898.1.1.2면>

만약 이 현상이 굳어져 ‘아니하다’가 ‘아니타’로 줄어든 뒤 ‘않다’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평안타’, ‘관계타’, ‘請타’ 등의 용언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ㅎ(다)’가 아주 줄어드는 현상 또한 일반적이었다.

- (4) 답답고<辟瘟, 9b>, 각진대<重老, 上2a>, 각지<明謔, 1:7a>, 녀넉게<女謔, 3:67b>, 답지<明謔, 1:2a>, 민첩디<한등, 2:9b>, 디<女訓, 上26a>, 和睦게<女訓, 上42a>, 감격게<女訓, 下5b>, 불목게<南桂, 8a>, 친목지<협성, 1898.1.1.2면>

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 형태가 출현한 시기를 검토한 결과, 18세기 후반에 ‘안하다’와 ‘않다’가 공존하고 있었고, 19세기 말에야 부정부사 ‘안’이 출현하므로, 부정부사 ‘안’은 명백히 ‘않다’로의 재구조화가 시작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정리하면, 부정서술어는 ‘아니’ 내부의 긴밀성으로 인해 ‘하다’보다 먼저 축약되어 ‘아니하다 > 안하다 > 않다’의 순서로 발달하고, 부정부사는 ‘않다’ 형성 이후에 유추되어 ‘아니 > 안’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 3.2 ‘N하다’형 기능동사 구성의 부정문을 구성하는 ‘아니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를 구성요소로 가진 ‘아니하다’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 중에서도 ‘N하다’형 기능동사 구성의 부정에 쓰이는 ‘아니하다’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술어명사 N에 기능동사 ‘하다’가 쓰인 ‘N하다’의 부정문은 ‘N하지 않다’보다는 ‘N 아니하다’로 실현되곤 한다. 이러한 ‘명사+아니하다’ 문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N하지 아니하다”에서 ‘하지’가 탈락되었다는 해석, ② “N하다”에 ‘아니’가 삽입되었다는 해석, ③ “N하다”의 기능동사 ‘하다’와 기능동사 ‘아니하다’가 교체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첫 번째 입장의 연구로는 이현희(1986)가 있다. 이현희(1986:219)는 중세 국어의 ‘아니하다’에 대해서 긴 형식의 부정문인 ‘-히디 아니히-’에서 ‘-히디’가 그 형식적인 성격으로 인해 생략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두 번째 입장에 해당하는 고영근(1987:304-308)에서는 어근과 ‘-히다’ 사이에 부정사 ‘아니’가 들어가 부정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 입장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김양진(2007)이 ‘아니하다’를 기능동사로 설정함으로써 ‘하다’와의 교체를 통해 부정문을 만드는 것으로 보려는 입장이 있다.

먼저, 이현희(1986)는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간접의문, 의도·목적 구문, 간접인용 구문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이들을 ‘내적 화법’이라는 범주로 묶는 시도를 하는 논문이다. 이때 이들 세 구문의 공통점으로 이들 구문에서 전이어, 또는 대동사로 쓰이는 ‘히-’의 형식성이 강해 쉽게 탈락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6) 이현희(1986:203) 재인용

ㄱ. “스승님 어마니미 이에 있다” ᄒ야 누 니르더니잇고” (월석 23:84)

ㄴ. “如來 상네 우리를 ‘아드리라’ 니르시니이다” (월석 13:32)

피인용문 S를 인용하는 방법에는 (16ㄱ)과 같이 ‘S ᄒ야 니르다’로 나타내는 방법과 (16ㄴ)과 같이 ‘S 니르다’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S ᄒ야 니르다’의 구문과 ‘S 니르다’의 구문이 교체되는 현상을 (16ㄱ)과 같은 형식에서 ‘ᄒ야’가 탈락해 (16ㄴ)의 형식이 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ᄒ-’의 탈락은 다른 영역에도 확장된다고 보고 있다.

이현희(1986)는 이와 같은 ‘ᄒ-’ 탈락이 ‘아니ᄒ다’에 의한 부정 구문에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17) 이현희(1986:203 각주) 재인용

ㄱ. 疑心티 아니ᄒ며 (금삼 2:4)

ㄴ. 疑心 아니ᄒ려니와 (금삼 2:3)

(17ㄱ)에는 ‘ᄒ-’가 있고, (17ㄴ)에는 ‘ᄒ-’가 탈락되어 있다. 즉, ‘疑心 아니ᄒ다’ 형식의 부정은 ‘疑心ᄒ다’에 ‘아니’를 넣은 것이 아니라, ‘疑心ᄒ디 아니ᄒ다’의 통사적 부정문에서 형식성이 강한 ‘ᄒ디’가 탈락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반면 고영근(1987)은 동사의 어근이 명사나 그에 상당하는 한자어로 되어 있을 때에 어근과 접사 ‘ᄒ다’ 사이에 ‘아니’를 두어 부정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함으로써, ‘아니’를 넣어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의해 다음과 같이 ‘아니’와 ‘ᄒ다’ 사이를 띄어 쓰며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18) 고영근(1987:350) 재인용

가. 信根이 力을 得ᄒ면 一定히 디녀 疑心 아니 ᄒ고 (월인석보 권 7, 45장)

나. 나도 現在 如來 一切 衆生을 시름 아니 ᄒ리라 (월인석보 권21, 130장)

(18가)는 한자어 어근과 ‘ᄒ-’ 사이에 ‘아니’를 둔 것이고 (18나)는 고유어



어근과 ‘ㅎ’ 사이에 ‘아니’를 두어 부정문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현대국어의 ‘운동하다’의 부정형으로 ‘\*안 운동하다’가 나타나지 않고 ‘운동 안 하다’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한편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김양진(2007)에서는 ‘아니하다, 안하다, 못하다’를 기능동사로 설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김양진(2007)은 한국어의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의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의 구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세 종류의 부정문을 세우고 있다.

(19) 김양진(2007:196) 재인용<sup>12</sup>

- 가.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장형부정)
- 나. ?그는 열심히 공부(를) 안한다/못한다. (대체형 단형부정)
- 다. \*그는 열심히 안/못 공부한다. (수식형 단형부정)

여기서는 ‘안하다/못하다’를 하나의 기능동사로 설정하는데, 이는 ‘안하다/못하다’가 사용된 부정문이 [N [하-]v] 구성에 대한 부정대응형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19나)를 단순히 장형부정의 축약형이라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와 ‘\*생각하지 안한다’는 준말-본말 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건강하다’와 같은 형용사에서 ‘건강하지 않다’와 같은 장형부정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그 축약형으로 보아야 할 ‘\*?건강 않다/’?건강 안하다’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다.

이현희(1986)와 같은 방법을 통사적 절차라 하고, 고영근(1987)과 같은 방법을 부사 첨가, 김양진(2007)을 어휘교체에 의한 어휘적 방법이라고 할 때, 세 번째 입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중세국어에서 ‘ㅎ’와 관련한 부정법에서는 이러한 어휘적 방법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문웅(1991)에서는 당시의 어휘적 방법에 의한 부정을 정리하고 있다.

(20) 김문웅 (1991:11) 재인용<sup>13</sup>

<sup>12</sup> 본고에서는 예문에서 \* 표시는 비문인 문장을, ?는 의미나 통사상의 이유로 문법성 판단이 애매한 문장을, #는 통사적으로는 완전히 정문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의도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sup>13</sup> 김문웅(1991)에서 검토한 자료는 「내훈」의 광해판(광해군2, 1611. 이하 ‘광’으로 줄여 표기함), 「어제내훈」(영조12, 1736. 이하 ‘영’으로 줄여 표기함)이다.

- ㄱ. 모로매 술고기를 잊게 히려시니 (광 1:38ㄴ)
- ㄴ. 죽조 가 보사 즐거 히려시다 (광2:52ㄱ)
- ㄷ. 내 仁을 코져 히려면 仁이 니를리라 (광1:14ㄱ)

예를 들어 (20)과 같은 긍정문을 통사적 부정으로 바꾼다면 ‘잊게 히려 아니~~히려~~’, 즐거히려 아니~~히려~~’, 코져 히려 아니~~히려~~’와 같은 형식의 부정문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문헌에서 나타나는 형식은 통사적인 부정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21)와 같이 ‘히려’를 ‘아니~~히려~~’로 교체하는 어휘적 방법으로 부정문을 만든다.

(21) 김문웅 (1991:12) 재인용

- ㄱ. 조스르원 벼스레 잊게 아니~~히려~~시고 (광2:46ㄱ)
- ㄴ.奴婢 튜물 즐거 아니~~히려~~야 (광3:29ㄴ)
- ㄷ. 나를 굴어시든 비록 코져 아니~~히려~~나 (광1:46ㄴ)

이러한 예를 보면 명사성 어근을 가진 동사가 아닌 경우에도 ‘히려’와 ‘아니~~히려~~’의 교체에 의한 부정문 형성이 자연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체는 대동사 용법의 ‘히려’나 간접 인용문의 화법동사<sup>14</sup>로 쓰인 예에서도 나타난다.<sup>15</sup>

(22) 김문웅 (1991:12~13) 재인용

- ㄱ. 비록 스랑~~히려~~샤물 흔히 두터이 히려나 (광2:105ㄱ)
- ㄱ’. 말스물 두터이 아니~~히려~~ 업시~~히려~~야 (광1:69ㄱ)
- ㄴ. 히려가 어즈러이 히려면 (광2:3ㄴ)
- ㄴ’. 一定~~히려~~야 서르 어즈러이 아니~~히려~~며 (광2:4ㄴ)

14 ‘화법동사’란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동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현대국어의 ‘~라고 하다’에 해당하는 ‘~다 히려’의 ‘히려’를 일컫는 말이다.

15 본고에서 이들 예를 ‘히려’ 앞에 부사 ‘아니’를 삽입하는 예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3장에서 다루었던 부정서술어 ‘아니다’가 어휘화되었던 것에 평행하게 어휘화된 부정서술어 ‘아니하다’도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부정서술어가 모두 어휘화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니’의 삽입으로 보든 ‘아니하다’의 교체로 보든 표면적으로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면, 체계상 일관성을 가지는 쪽이 이론적으로 더 추구할 만하다고 본다.

ㄷ. 제 몸을 외다 호고 (광1:31ㄴ)

ㄷ'. 사르미 서르 외다 아니<sup>호</sup>야 (광3:56ㄱ)

(22ㄱ, ㄴ)은 '(목적어)+부사+호-'의 구문이 '아니<sup>호</sup>-'로의 교체로 부정문을 형성하는 예를, (22ㄷ)은 간접 인용문의 화법동사 '호-'가 '아니<sup>호</sup>-'와 교체되어 부정문을 만드는 예를 보인다. '목적어+호-'의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식이 사용된다.

(23) 김문웅 (1991:13) 재인용

ㄱ. 글와를 즐겨호디 글 지소물 아니<sup>호</sup>며 (광1:26ㄱ)

ㄴ. 네 道理 스랑호물 아니<sup>호</sup>야 (광1:29ㄴ)

ㄷ. 苟且히 어두물 아니<sup>호</sup>며 (광3:24ㄴ)

ㄹ. 오솔두 비출 아니<sup>호</sup>시며 (광2:120ㄱ)

### 3.3 '아니하다'의 문법적 지위

그렇다면 김양진(2007)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이들 부정서술어 '아니하다(안하다)'는 기능동사인 것일까? 이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우선, '아니하다(안하다)'를 기능동사로 보는 근거는 (24)과 같은 예에 의해 성립된다.

(24) 서술성명사+기능동사 하다

ㄱ. 공부했다.

ㄱ'. 공부 안했다.

그러나 '하다'와 '안하다' 모두 (25)와 같이 비서술 명사에도 결합 가능하므로, 우선 기능동사의 범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5) 비서술성명사+하다

ㄱ. 밥했다.

ㄱ'. 밥 안했다.

ㄴ. 나무했다.

ㄴ'. 나무 안했다.

만약 술어명사의 범위를 넓게 잡아, ‘밥’과 ‘나무’가 ‘하다’와 결합할 때는 술어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경우에도, 여전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포괄할 수 없다. 간접인용문의 화법동사 ‘하다’, 대동사 용법의 ‘하다’, 부사어와 함께 쓰인 ‘하다’ 등의 다양한 구성에서 ‘하다’는 모두 ‘아니하다’와 교체가 가능하다. 만약 기능동사인 ‘하다’와 교체되기 때문에 ‘아니하다’를 기능동사로 설정해야 한다면, 화법동사인 ‘하다’와 교체되는 ‘아니하다’는 또한 화법동사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 (26) 간접인용문

- ㄱ. 선생님은 나의 말이 틀리다고 하셨다.
- ㄱ'. 선생님은 나의 말이 틀리다고 안하셨다.
- ㄴ. 너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했잖아.
- ㄴ'. 너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안했잖아.

#### (27) 대동사

- ㄱ. 철수가 손뼉을 쳤고 영희도 그렇게 했다.
- ㄴ. 철수가 손뼉을 치지 않았고 영희도 그렇게 했다.
- ㄴ'. 철수가 손뼉을 치지 않았고 영희도 그렇게 안했다.

#### (28) 부사어의 뒤에서

- ㄱ. 옷차림을 깨끗이 했다.
- ㄱ'. 옷차림을 깨끗이 안했다.

그러므로 ‘아니하다/안하다’는 기능동사이기 때문에 ‘하다’와 교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다’의 부정대응형이기 때문에 교체된다. ‘아니하다’는 기능동사인 ‘하다’, 화법동사인 ‘하다’, 대동사인 ‘하다’ 등 다양한 ‘하다’와 교체되어 부정문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 3.4 부정서술어의 어휘화

마지막으로 현대국어에서 ‘아니다’와 ‘아니하다’는 ‘아니’를 분리해낼 수 없는 한 단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몇 가지 기준을 통해 확인하겠다.

## ① 내적 비분리성

‘아니’와 ‘이다, 하다’ 사이에는 어떤 요소도 개재하지 못한다. 다음은 두 요소 가운데 부사를 삽입했을 때 비문이 되는 예를 보인 것이다.

- (29) ㄱ. 최근 회의를 너무 안했다.  
 ㄴ. \*최근 회의를 안 너무 했다.

- (30) ㄱ. 그는 절대 학생이 아니야  
 ㄴ. \*그는 학생이 안 절대이야

또한 두 요소 중 하나만 분리하여 이동시킬 수도 없다. (31~34)의 예는 ‘안’과 ‘이다, 하다’를 분리하여 어느 하나만 이동시킬 경우 비문이 됨을 보인 것이다.

- (31) ㄱ. 최근 안했다, 회의를.  
 ㄴ. \*최근 회의를 했다, 안.  
 ㄷ. \*최근 안 회의를 했다.

- (32) ㄱ. 그는 아니었다, 외국인이다.  
 ㄴ. \*그는 외국인이었다, 안.  
 ㄷ. \*그는 안 외국인이었다.

- (33) ㄱ. 최근 회의를 안했다, 너무.  
 ㄴ. \*최근 회의를 했다, 너무 안.

- (34) ㄱ. 그는 외국인이 아니었다, 전혀.  
 ㄴ. \*그는 외국인이었다, 전혀 안.

## ② 외적 분포관계

또한 수식어가 ‘아니’와 ‘이다, 하다’를 분리하여 수식할 수 없다. (35~36)의 예는 부사어가 ‘아니’만을 분리하여 수식할 경우 비문이 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 (35) ㄱ. 어제는 공부를 [너무 [안했다.]]  
      ㄴ. \*어제는 공부를 [[너무 안]했다.]

- (36) ㄱ. 그는 학생이 [전혀 [아니다.]]  
      ㄴ. \*그는 학생이 [[전혀 안]이다.]

③ 의미론적 기능

‘아니다’는 하나의 단어가 되어 ‘부사+이다’ 이상의 다른 의미를 파생하기도 한다.

- (37) ㄱ. 그 사람은 성격이 좀 아니야.  
      ㄴ. 이들 무리는 오합지졸에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특히 군대는 아주 아니었다.  
      ㄷ. 너 그렇게 학교에서 떠드는 거 아니야.

(37ㄱ,ㄴ)은 부정적 가치판단의 의미를 가지는 ‘아니다’이며, (37ㄷ)은 문장에서 화용론적으로 부정명령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니다’이다.

④ 음운론적 기능

‘아니하다’는 3.1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않다’로 융합된 꼴로 발달하였으며, 현대국어에서는 격식적 문어에서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개 ‘않다’로 실현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아니다’와 ‘아니하다’는 현대국어에서 ‘아니’를 분리해 낼 수 있는 투명한 구성이기 보다는, 하나로 굳어진 서술어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아니’ 계열 부정소의 지위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① ‘아니’의 품사 문제, ② ‘이다’의 성격과 ‘아니다’의 문제, ③ ‘N하다’의 부정

문을 형성하는 ‘아니하다’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아니’가 초기에는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정서술어를 형성하는 데에도 명사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부정서술어는 어휘화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아니’를 분리해낼 수 없게 되었고, ‘아니’는 부사의 자격으로만 남아 있다. ‘아니다’의 형성에서는 명사 ‘아니’를 포함한 구성에 ‘이다’가 붙었던 것이, 재분석되어 ‘아니다’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아니하다’에서는 흔히 ‘하다’와 교체되어 대응하는 부정문을 형성한다. ‘아니하다’를 ‘하다’ 앞에 ‘아니’의 삽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다’와의 교체로 보는 입장을 취하면, ‘아니하다’를 어휘화된 ‘아니다’와 평행하게 다룰 수 있다. 또한 ‘아니’를 분리하여 수식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는 데서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 중에는 ‘이다’나 ‘하다’의 기능동사적 성격에 비추어 ‘아니’를 기능동사 ‘이다’의 술어 명사로 판단하거나, ‘하다’에 대응하는 기능동사 ‘아니하다’를 성립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는 사용상의 제약을 잘 포착해낸 세심한 관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니다’에서도 여전히 기능동사적 예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니하다’에서는 대당긍정문을 이루는 ‘하다’에 기능동사 이외의 여러 쓰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박의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 참고문헌

- 고영근. 1987/2009.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김동식. 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다*. 동아출판사. 452-466.
- 김문웅. 1991. “옛 부정법의 형태에 대하여: 「내훈」과 「어제내훈」을 중심으로”, *들깨서재극 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 김양진. 2007. “부정의 기능동사 ‘않-, 안하-, ‘못하-’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학* 35.
- 목정수. 2003. *한국어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문순덕. 1998. “제주 방언의 단형 부정문 소고”, *언어학연구* 3, 한국언어연구학회
- 서정수. 1974. “국어의 부정법 연구에 대하여”.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_\_\_\_\_. 1978. *국어 구문론 연구*, 탑출판사
- \_\_\_\_\_. 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성기철. 1977. *국어학신보*, 개문사
- 안병희. 1959. “중기어(中期語)의 부정어(否定語) 「아니」에 대하여”, *국어학문학* 20.
- 양정석. 1986. “‘이다’의 의미와 통사”, *연세어문학* 19, 연세대학교.
- 엄정호. 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18.

- 이주행. 1993. “근대국어 표기법에 대한 형태론적 해석”. *정신문화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 50호).
- 이지영. 2008. *한국어 용언부정문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 이현희. 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 \_\_\_\_\_. 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논문집* 3. 한신대.
- 임동훈. 2005. “‘이다’ 구문의 제시문적 성격”, *국어학* 45.
- 임흥빈. 1998. “부정법”.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551-620.
- \_\_\_\_\_. 2006. “정체 발힘의 형용사 ‘이다’ 문제와 언어”,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역락
- 정인승. 1949. *표준중등말본*, 을유문화사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현완송. 2007. “영어의 부정 유형과 특징”, *언어학연구* 12-1, 한국언어연구학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15호  
연세대학교  
120-749  
phone: 010-2046-5387  
E-mail: jaicky@naver.com

접수일자: 2014. 6. 30  
수정일자: 2014. 7. 28  
게재결정: 2014. 8. 16